



주경야독(晝耕夜讀). 이 말은 환경이 어떻든간에 의지만 있다면 공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이지만 이를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공부도 다 때가 있다'면 때를 놓친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탓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광성호 씨는 쉽지 않은 일을 즐겁게 해왔다. 늦게 시작했지만 10년 동안 꾸준히 ... 국졸 학력이 대졸로 이르게 된 이야기를 소개한다.

“공부가 가장 즐거웠어요”

‘뉴욕 베이커리’ 광성호 씨의 늦깎이 학업 역정

최근 울초 서울대 법대 수석합격자 장승수 군이 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수기가 인기를 모으면서 전국에 걸쳐 ‘장승수 신드롬’이 일고 있다. 수석 합격 소식이 전해진 날 방송,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제목으로 딴 이 책에서 그는 힘겨웠던 지난 시간을 술회하고 있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대학진학을 단념하고 신문배달, 택시 운전사, 공사장 일 등을 전전하면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가 기슴 몽클한 말을 던진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가난은 ‘고사리손’을 일터로 내몰고

하루 종일 매달려야 하는 제과일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어려서부터 제과업에 뛰어들었다면 책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한 사람이 있다. 서울 강서구에서 ‘뉴욕 베이커리’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꾸리고 있는 광성호(42)씨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국졸이 최종학력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전문대, 대학을 거쳐 지금은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또한 지난 9월에 있는 제과 기능장 시험에도 당당히 합격했다.

“공부가 즐거웠기 때문에 힘든 점은 없었어요” 그의 말은 ‘공부가 가장 쉬웠다’는 장승수 군의 말처럼 가난하고 힘겨웠던 지난 세월을 엿보이게 한다.

그는 전남 장흥에서 농사를 짓는 가난한 집안의 8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그는 진학을 포기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기술을 익히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친척 한 분이 목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어 그는 그곳에 취직했다. 그때 그의 나이 고사리손 13세였다.

제과점 보조일을 하며 그의 손마디는 굵어지기 시작했고,

그는 시춘기를 느낄 새도 없이 훌쩍 몇년을 보냈다. 그후 그는 광주의 한 제과점으로 자리를 옮겼고 군대에 가기 전까지 그곳에서 일을 했다. 제대를 하고 그가 서울로 올라온 때는 77년. 그는 풍년제과에 중간 기술자로 입사했고 몇년 후 공장장으로 승진했다. 그곳에서 5년간 근무한 그는 준비기간을 거쳐 드디어 84년 봄, 꿈에 그리던 자기 점포를 갖게 됐다. 시쳇말로 독립을 한 것이다.

주경야독 ... 검정고시 거쳐 대학원까지

그가 때를 놓친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그로부터 2년 후의 일이었다. 개업 초기에는 도대체 짬이 나질 않았다.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그를 작업장에서 꼼짝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개업하고 2년이 지나자 제대로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전에도 틈틈이 책을 보긴 했지만 자투리 시간 인지라 공부가 축적되지 않았어요. 더 늦기 전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책과 자신을 매어놓으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그의 결심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학교를 졸업

한 지 20년이 다 됐다면 ‘공부’라는 단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후 오전 가게일을 보고 오후에는 어김없이 검정고시 학원에 다녔다. 학원을 마치고 다시 가게로 돌아와 하루 영업을 정리하고 새벽까지 책상을 밝혔다. 그는 87년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이어 89년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노력의 결실을 보자 그는 공부하는 게 더욱 즐거웠다.

그는 91년 경희호텔경영전문대 조리과(야간)에 입학, 20년 가까이 터울진 학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93년 전문대를 졸업한 그는 다시 군산에 있는 전북산업대 무역학과에 3학년으로 편입했다. 야간이 아닌 주간 과정이었기에 그는 1주일 중 주

말을 제외한 5일을 군산에서 보냈다.

친구, 친척집을 전전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생활을 마치고 주말에 돌아와 가게일을 보고 다시 월요일 군산에 내려가기를 2년. 그는 95년 꿈에 그리던 학사모를 쓰게 됐다. 그는 더욱 욕심이 생겼다. ‘대학원까지 마치는 거야’

그는 그해 경기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입학했다. 대학 때와 달리 수업시간은 많지 않은 대신 스스로 채워야 할 내용이 많았다. 일주일에 이틀 강의를 듣고 나머지 시간은 스스로 강의를 보충하고 심화해야 했다. 학교가 서울이라 주말부부에서 벗어난 것은 좋았지만 가게일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 공부량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가게일은 자연 아내가 주도했다. 10년에 걸친 그의 공부 뒤에 아내의 흔적이 선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아내가 고맙게도 잘 참아주었어요. 벌써 10년입니다. 기간이 길어 불만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내색하지 않고 제가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찍 배운 기술, 늦게 배운 지식을 유용하게

공부 욕심이 많은 그가 제과인들의 꿈인 ‘제과 기능장’을 지나칠 리가 없다. 그는 94년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지난해 실기시험을 봤지만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다시 도전, 이번에는 합격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등재했다.

그의 늦깎이 공부 역정도 내년 석사학위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마침표를 찍게 된다. ‘공식적’이란 뜻은 학교생활을 마친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공부는 이제 본격적인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는 힘든 여건이었지만 ‘즐겁게’ 해온 공부를 스스로 만족하는 선에서 가뉘놀 생각이 없다. 어려서부터 익힌 제과 기술과 늦게 시작한 공부로 배운 지식을 결합, 뜻깊은 데 쓰고 싶다.

“현재의 제과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넓은 안목이 요구됩니다. 알량한 지식이지만 기술과 안목을 알리고 보급하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손가방 옆에 끼고 그는 학교에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한다. 학교에는 ‘즐거운 공부’를 더욱 즐겁게 해줄 강의가 기다리고 있다. 

〈글/손인수〉



▲ 광성호 씨는 일과 공부를 함께 하면서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둘 다 즐거운 일인데 뭐가 힘들겠어요”라고 말한다.



▲ 오늘은 강의가 있는 날. 광씨는 버스를 기다리며 미리 오늘 배울 내용들을 예상해본다.



▲ 어느덧 대학원까지 왔다. 공부량이 많아져 그는 서점에 나와 전공 관련 신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일과의 하나다.